

지금 우릴 보시는
성자의 애타는 마음

작성일: 2013년 8월 7일(수)

작성자: 김영광

* 성자의 말씀 *

선생이 나와 내 아버지의 손을 붙잡기 위해
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진정 아느냐.
별써 심판받았어야 할 너희인데..
양과 염소로 쪼개질 너희인데..
선생의 몸부림으로
이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.

사랑아.
말씀을 자세히 보아라.
매주 떨어지는
심정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.
진정으로 느껴지지 않느냐.
선생의 울부짖음이 느껴지지 않느냐.
진정 나 성자의 심정의 소리가 느껴지지 않느냐.

사랑아. 제발.. 제발..
이제는 너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
너의 인생의 키를 나에게 다오.
지금온 네가 네 자신을 운전하면
100% 생명길로 갈 수 없게 된다.
도리어 사망으로 갈까 나 성자가 조마조마하다.

사랑아. 비워라.
그리고 내게 간구하라.
내가 응답해 줄 때까지 간구하라.
지금 내가 이르는 이 말을
전에 했던 말로 생각하지 마라.
각자의 자기 때가 끝나게 되면
나 성자는 뒤도 안 쳐다본다.
과거 선생이 너희 많이 쳐다봐 주고
기다려 주지 않았느냐.
그것이 선생 홀로 쳐다봐 주며
기다려 준 줄 아느냐.
나 성자가 그 같이 행함을 깨달아라.

선생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아.
어찌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.
어찌 지금 선생이 나왔다고
그리 내가 내 분체 통해 이야기해 줘도..
너희는 너희 주관으로
끝까지 밀고 나가는구나.
선생 나오면 만나겠다는 자들아..
지금 만나라..
시간이 없다..
지금 선생과 만나야 그 때도 만나지!
지금 만나지 못하면 그 때도 마찬가지다.

휴거의 관념에 사로잡힌 자들..
선생만 그저 목 빠져라 쳐다보며 기다리는 자들..
너희 휴거 때문에 아직도 선생이
저리 매여 있음을 진정 알지 못하는 것이냐.

섭리사여..
너희 정말 나 사랑하고, 선생 사랑하느냐.
섭리여.. 진정 물어보겠다.
너희 정말 나와 선생을 사랑하느냐.
사랑하면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.
왜 내 말에는 순종치 않으면서
내가 사랑 하냐고 물어보면
자기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대답만 하느냐.

언제까지 아이같이
젖 달라는 신앙만 하고 있을 것이냐.
너희 위해 저리 애걸복걸하는 선생이
눈에 보이지 않느냐.
육의 눈만 눈이냐.
혼과 영의 눈을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이냐.
진정 하늘이 언제까지
참아 주고 기다려 줘야 하느냐.

나중에 정말 시간이 흘러
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와야
그 때야 비로소
네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할 것이냐.

작년에 그리 회개하라 해도 회개치 않더니..
영 휴거의 때라고 이야기하니
그제야 부랴부랴 회개한 자들아..
너희 회개시켜 주려고

선생이 너희 위해
얼마나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한 줄 아느냐.

사랑하는 나의 섭리여..
나의 인내를 시험치 말라.
때 지나면 소용없다.
열차가 시간에 맞춰 출발하면
그 열차는 절대 탈 수 없는 것이다.
그것이 막차라면
아예 네가 가고 싶은 장소를 갈 수 없게 된다.

말씀 제대로 봐!
말씀 속에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
얼마나 처절히 이 말씀 적어 주었는지..
제발 내가 보낸 자를
제대로 모시길 바란다.

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
나와 내 아버지를 모시는 것 역시
너무나 민망할 정도구나.

너희는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.
구약 때 아브라함이
예배 한 번 잘못 드리므로
그 민족이 400년 동안
종살이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.

성자의 육신인 나사렛 예수에게
한 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
천국과 지옥이 나뉘졌다.
지금 나와 내 아버지의 손을 한없이 붙잡고 있는
선생의 눈물이
너희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더냐.

선생의 살과 피로 이뤄진 진리 성령은
어느새 형식의 행사로만 참여하더냐.
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건만..
선생의 피와 살은
곧 나 성자의 피와 살이요,
내 아버지의 피와 살이다.
그 수고와 애씀을
너희는 땅에 떨어뜨리니
진정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.

내가 이리 무섭게 말해야
너희는 그제야 다시 긴장하겠느냐.

어느새 휴거는
마치 지옥에 가면 안 되기에
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리니
나 성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.
그 누구도 이에 대해 선생에게
제대로 한 마디 위로해 주는 자 없구나.

휴거는 결국 나와 같이 사는 것인데..
새벽에 전 세계 섭리사를 순회해 보면,
정말 나와 함께 살려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려
내가 내 분체 손잡고 함께 가보면
가히 민망할 정도인 교회도 있구나.
내가 너희에게
어떤 엄청난 대접을 받길 원하는 줄 아느냐.
단 하나..
나를 진정 사랑한다는
그 말 듣고 싶어서
내 분체 손잡고 함께 가는데..
그리 나의 마음을 붙잡으며
나의 걸음을 조금이라도 붙잡기 위해
몸부림치는 자가 이리도 적단 말이나..
섭리여..
내 마음이 이리 쓰리고 아프구나.

이제 나와 내 분체가 할 도리를 다 했다.
이제 정말 마지막이다.
이제는 미련도 후회도 안 하련다.
이제는 나 정말 사랑한다는 자들에게만 갈 거야.
나와 내 분체와 영원히 살고 싶다고
매일 내게 간구하며
조금이라도 내 발걸음 붙잡는 곳에 갈 것이다.
사랑과 정성이 없는 곳은
더 이상 내가 가지 않겠노라.

그 동안 선생이 죽어라 밥도 거르면서,
잠도 못 자면서, 쓰러지면서 행했던 기도는
바로 삼위가 너희에게 한 번만,
한 번만 더 가 달라는 기도였다.
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하고 있다.
내가 가면, 내 아버지가 손을 대면
죽을 자도 살기에..

휴거 되지 못할 자도 휴거되기에..
은혜가 없는 곳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에
돌아간 내 마음을 다시 붙잡으면서..
심판의 손을 내리고자 하시는
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면서
그리도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 휴거를 위해
저리도 자기 몸이 부서져 가며 기도하고 있다.

너희는 얼마나 너희 영혼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느냐.
진정 얼마나 내 분체를 위해 기도해 주느냐.

너희 가운데 선생 당세가 휴거 때니
휴거가 길게 느껴지는 자들 있느냐.
나 성자가 엄히 경고하니
분명 자기 때가 있음을 알아라.
그 때가 지나면 휴거 당세 때라도
자기는 휴거되기 어렵게 된다.
진정 엄히 말했다.

내 분체를 통한 나의 말을 허투루 듣는 자들은
진정 구원이 아깝고 휴거가 아깝다.
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
어떻게 너희 위해 말씀 받는지 다 알고 있다.
그걸 알기에 진정 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고,
함부로 대하고, 하찮게 여기며,
보통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
구원과 휴거가 아깝다.

너희 살리려고 주는 말씀이다.
살리려고..
나 성자가 너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주는 말씀이다.
이리 말해도 뇌가 굳은 자들은
내가 이토록 애태우며 이르는 말을
보아도 보지 못하고,
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.

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 같이
자기 때가 끝나면 신랑이 왔어도
신랑은 '나는 너를 모른다.'하게 된다.

선생을 육으로만 보면
그저 너희와 같은 육이겠지만
그는 성자의 육신이다.

너희 생각대로
그가 너희를 대할 거라 생각지 마라.
이 역사는 내 아버지 역사다.
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.

더 이상 너희가 머리가 되어서 주는 사랑을
나는 받지 않는다.
내가 원하는 사랑, 선생 원하는 사랑을 해다오!

너희와 같이 살고 싶어
이리 심정 다해 외쳤다.
너희 한 명 한 명 보며
눈물로 심정의 글을 쓰는
내 어린 양을
제발 기억해 주길 바란다.
사랑한다. 섭리여.
살롬.